



3면

후백제 왕도 전주, 천년역사문화도시 '공고히'

전주매일

2023년 3월 6일 월요일 (음 2월 15일)

제321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정부 “새만금잼버리 전폭 지원”

제2차 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안전대책 4개 과제 등 추가 총 27개 중점지원과제 논의 김관영 지사, “부처 지원과제 더 구체화... 완성도 높여야 대회 기간 안전사고 예방 임시기교량 설치 완료 노력”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세계 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8월 개최되는 세계잼버리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부처별 정부 중점지원과제를 점검했다.

정부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범부처 정부지원위원회이며,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세계잼버리의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개최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번 대회는 170여개국 4만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이자 한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좋은 기회이며 “안전한 잼버리, 꿈의 기우는 잼버리, 한국을 누리고 즐기는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정부 부처의 지원과제를 더욱 구체화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대회 기간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대집회장 진입 임시기교량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잼버리는 세계 각국에서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한류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문화교류의 날 행사를 통해 세계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국관광공사 k-pop 콘서트 지원 예산 확대와 중랑강 있는 한류스타를 지원



K리그 전북현대 선수단과 함께

김관영 도지사는 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K리그1 전북현대 모터스와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의 홈 개막전을 관람하기에 앞서 선수단을 방문해 지난해 FA컵 우승을 이룬 선수단을 격려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북소방본부 내 소방력으로는 잼버리 의료시설(잼버리병원 등)에 필요한 장비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소방청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소방 장비 지원과 세계잼버리 의료 인력 지원을 위한 공중보급기의 근무 지역의 파견근무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잼버리 개최 이후 유산(legacy) 확산 및 지속 가능한 교육과 홍보 방안 탐색이 필요하다”면서 “잼버리 대회기간의 활동상 등을 흥미로운 교육영상으로 제작하여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전북과 한국에서 얻은 교육적 경험을 심화하고 전 세계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에서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대책 4개 과제와 세계잼버리 행사내용 지원을 위한 개·폐영식 및 프로그램 1개 과제 등 5개 과제를 신규로 추가해 총 27개의 중점지원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추가된 안전대책 과제는 △치안 안전대책 및 교통관리, △소방 안전대책 수립 및 구조·구급

인력 지원 △해양 안전대책 수립 및 지원 △기상정보 지원, △개·폐영식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또한 잼버리 시설 관련 총사업비가 (당초 343억 → 390억원, 47억원↑) 10%이상 증액되어 시설별 설치이용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사후활용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정부부처 중점지원과제에 대해 수시로 진행상황 점검과 현장점검을 통해 대회 준비 상황을 꼼꼼히 관리 보완하고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 전까지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전 부처가 협력해 더 폭넓고 세밀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번 대회를 통해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내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강화, 한류문화 확산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치즈 역사의 시작’ 임실성당 전북 등록 문화재 지정 예고

1950년대 성당건축 특징 갖춰

대한민국 치즈원조인 임실치즈의 역사가 시작된 임실성당이 전북 등록 문화재로 지정예고됐다.

군은 1950년에 건립된 임실을 이도리 소재 임실성당 사제관(司務館)이 전라북도 등록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임실성당은 임실천주교회가 본당으로 승격된 1956년 이후 최초 성당 건축물이다.

대성전과 사제관이 'L'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사제관은 시멘트벽돌구조의 2층 건물로 1층은 사제관 2층은 소예배실, 회합실로 이용하고 있다.

1층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며 장식을 최소화하고 단순하게 처리했다.

조성 당시 주민들이 직접 만든 시멘트벽돌로 쌓았으며 외벽은 시멘트 뿔



임실성당 사제관 전경.

칠로 마감하였고, 창대와 창문 상부의 첨두 아치부분은 인조석 물빛기로 마감하여 1950년대 성당건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64년 벨기에 출신의 지정환 신부가 부인한 후 사제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신앙유를 이용한 치즈산업을 시작하는 등 한국치즈의 역사를 연 특별한 장소이다.

임실성당 사제관은 2월 24일부터 한 달간 지정 예고를 거쳐 최종 지정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임실군청 문화체육과(063-640-2315)로 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국립 익산 치유의숲 ‘첫 삽’... 전북 대표 산림관광지로

함라산 국유림 62ha에 145억 투입... 12월 완공
한방 인프라 접목
전문가 치료 가미



지난 3일 열린 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사업 기공식 및 안전지원례.

익산시가 함라산에 추진 중인 ‘국립 익산 치유의숲’이 치유와 휴를 제공하는 전북 대표 산림 관광지로 탄생한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사업’이 정원을 익산 시장, 김수홍 국회의원,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청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

‘국립 익산 치유의숲’은 옹포면 옹포리 산 95번지 일원 함라산 국유림 62ha에 145억원을 투입해 숲속 치유공간을 조성하는 익산시와 서부지방산림청 합동 추진 사업으로 올해 12월 완공 예정이다.

전국 13개소 한정 사업으로 마지막 13번째 장소 유치경쟁 끝에 ‘전북 유일’의 ‘국립 치유의숲’으로 선정되며, 도내 산림 힐링 관광지로써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 치유의숲과 차별화를 위해 지역 한방 인프라(원광대학교 한의학과·한방병원·보건소 한방사업체 등)를 접목해 기본 치유를 넘어 전문가의 치료가 가미했다. 또한, 치유의숲 속에서 ‘금강 나

조 절경’을 조망할 수 있고 테마가 있는 명품 황토 숲길(2km) 등 익산민의 시그처 포인트로 많은 산림휴양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서부지방산림청과 긴밀 협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T팀 운영, 주민의견 청취와 전문가 회의,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여 치유의숲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